

화합과 안정을 바탕으로 도약하는 한국해운



협회소식	2
제2회 한국선주협회장배 전국요트경기대회 성료	2
한국선주협회 회장단, 제15차 ASF 의제 등 협의	6
외국선박의 선박안전법 적용제외 조속 시행 건의	7
창성해운 등 13개 국적선사 협회 회원가입	8

업계동정	10
------	----

해운이슈	19
해양사고 발생시 선원의 인권문제 국제이슈로 부각	19

해사정보	26
외항운송사업자운임공표업무처리요령 개정시행	26
해양수산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7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 현장 중심으로 정책추진	30
올 1-2월 아시아의 대미 컨수출물량 20% 증가	33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최근에 하락세 두드러져	36
중국 6월1일부터 항만 보안료 부과기로 결정	38

해사문화	42
------	----

해사일지	44
------	----



고려해운

부산-간사이-남중국 서비스

고려해운(대표 최영후)은 한국-일본-남중국을 직행으로 묶는 신서비스를 개설한다.

이 서비스는 기존 부산-간사이서비스를 남중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342TEU급 4척 투입한다. 투입선은 'Sunny Olive'호를 비롯하여 'Sunny Pine'호, 'Sunny Linden'호, 'Sunny Ceder'호 등 4척이다.

기항지는 고베-오사카-후쿠야마-미즈시마-히로시마-부산-울산-광양-홍콩-황푸-난사-울산-부산-고베 순이다.

남성해운

일본 시부시항 추가 기항

남성해운(대표 김영치)은 4월말부터 Happy Star(342TEU)를 투입하고 있는 큐슈-부산-세토우치-부산 컨테이너항로에서 새롭게 시부시항 기항을 개시했다. 시부시 기항은 매주 토요일로 제1선은 4월29일(토)에 기항했다.

이 서비스의 기항루트는 부산-호소지마-시부시-아부라쓰-부산-이와쿠니-이요미시마-부산 순이다.

대한해운

탱커사업 확대

지난 3월 탱커사업 진출을 선언한 대한해운(대표 이진방)이 탱커사업부문 확대를 도모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대한해운은 지난 3월17일 2008년 상반기납기로 10만5,500DWT급 아프리카막스급 탱커 1척을 일본조선소에 발주했다. 투자액은 585억원이다. 이어 4월28일 대한해운은 4만 9,900DWT급 Product Oil/Chemical Tanker 2척을 STX조선에 신조발주한다고 밝혔다. 투자금액은900억원, 인도시기는 2008년 상반기다.

동남아해운

김성기 부사장 임명

썸머타운그룹 소속 동남아해운(대표 임병석 회장)은 지난 4월19일부로 한진해운 전 임원인 김성기씨를 부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성기 부사장은 한진해운에서 23년간 근무하면서, Senator Line 지중해/중동지역 본부장 및 영업총괄 상무로 재직한 바 있으며, 동남아해운의 사업총괄이라는 중임을 맡게 됐다.

SK해운

중국 상해 사무소 개설

SK해운은 지난 4월3일 이정화 사장 등 임직원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중국 상해에서 사무소 개소를 거행했다.

SK해운 상해사무소는 앞으로 중국지역 거점으로서 독자 생존 기반을 구축하고, 벌크선 영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확장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자춤과 중국식 고사 등 중국 전통식으로 다채롭게 구성된 이날 행사에는 SK(주) 중국본부 화학본부장인 민원규 상무를 비롯한 관계사 임원들도 참석하여 축하를 보냈으며, 상해사무소 직원들을 격려했다.



개소식에 이어 이정화 사장은 상해사무소 Global Staff을 대상으로 직접 영어로 SKMS를 강의 하며, 몸소 SK의 경영철학 및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같은 날 오후엔 이정화 사장을 비롯한 SK해운 임원과 영국, 일본, 싱가포르 현지법인장 및 상해사무소장이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전략회의'를 가졌다. 본 회의에서는 각 글로벌 거점별 2nd To-be Model을 발표하고, 각 거점별 Resource와 Capability를 본사와 Align시킬 수 있는 방안 및 전략수행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글로벌전략회의는 올해를 시작으로 향후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최근 2년간 현지법인이 달성한 경영실적 못지 않은 성과를 향후에도 꾸준히 이룩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적 경험과 노하우를 한데 모으는 최고전략회의가 될 것이다.

STX팬오션

중국 물류사업 첫 진출

STX Pan Ocean(대표 이종철)이 회사 출범 후 첫번째 합작법인을 중국 칭다오(청도, 靑島)에 설립하고, 중국내 물류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STX Pan Ocean은 4월6일 중국 칭다오에서 이종철 사장, 후샤오준(湖兆軍) 칭다오市 副시장, 신흥근(辛亨根) 칭다오 총영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작법인 개업식을 가졌다.

STX Pan Ocean과 중국 천진쿤유한공사가 50:50의 비율로 공동투자하는 이 합작법인의 이름은 'Qingdao STX-Keyun Logistics', 중국 현지법인명은 '청도세등쿤유물류유한공사'이다.

총 자본금 100만달러 규모로 설립된 합작회사는 우선 칭다오 신항 임해지역 컨테이너 야드(CY.Container Yard) 1만1,000여평을 8년간 사용할 수 있는 임대 계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CY운영과 선박대리점업 등을 통해 본격적인 수익 창출에 나서게 된다.

지난해 홍콩법인과 상해법인을 잇달아 설립하며 중국 물류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는 STX Pan Ocean은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현지 물류기반 확보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으며, 청도항 투자사업을 시작으로 상하이(上海), 텐진(天津), 닝보(寧波) 등의 주요 항구에 물류거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세계 물동량의 24%를 점하고 있는 중국은 STX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실행의 핵심축이며, 이번 청도항 CY투자사업을 계기로 중국 해운·조선 산업과의 상호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해나가는 한편, 2007년까지 연안 및 내륙을 망라한 중국 전역으로 거점을 확대, 운송사업과 연계한 물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금상선

평택-오사카항로에 부산 추가

장금상선(대표 정태순)이 지난 3월6일 개설한 평택-오사카·나고야간 정기직항로에 4월19일



부터 부산항을 추가기항하고 있다..

이 항로에는 255TEU급 '시노코·울산'호 1척이 투입돼 주간정요일로 서비스되고 있다. 서비스루트는 평택-부산-오사카-나고야-평택-부산 순이다.

'시노코·울산'호는 로로선박으로 컨테이너 255TEU와 승용차 60여대를 적재할 수 있어 승용차나 벌크화물도 동시에 수송이 가능하다

(주)한진

서비스만족 대상 수상



종합물류기업 (주)한진(대표 이원영)의 택배사업 부문인 '한진택배'가 최근 한국일보에서 주최한 제4회 서비스만족 대상 운송서비스 부문에 선정되었다.

(주)한진의 택배사업부문인 '한진택배'는 소비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일택배, 여권택배, 그리고 각종 제휴 서비스 등 다양한 상품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빛나는 한진의 서비스는 철저하게 고객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 특히 한진택배의 상품개발 노력은 전반적인 택배서비스의 이미지제고를 가능케 해 택배산업의 질적 업그레이드로 이

어질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KTX와 연계해 하루 만에 택배를 받아볼 수 있도록한 초고속 '한진-KTX 당일 택배'는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 상품이다. 또 한진은 미국대사관 비자신청 창구에 별도의 부스를 마련, 배송의뢰를 받고 있다.

한진은 택배이용이 많은 인터넷 상인들을 위해 영수증 서비스도 펼치고 있다. 택배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나 영수증 발급이 까다로워 놓치기 일쑤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매달 영수증을 한꺼번에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한편, (주)한진은 인터넷 예약에서 발생하는 매출 중 1%의 비용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등 소비자 사랑에 적극 보답하고 있다.

태영상선

창립 51주년 기념행사

태영상선(대표이사 박영안)은 4월2일 오전 10시부터 임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시민공원 이촌지구 거북선 나루터에서 창립 5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박영안 사장은 "해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뿐 아니라 다른 분야를 종합하여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갖춘 21세기 하이브리드형 인재상"을 강조하며, 국제적 안목과 능력을 갖춘,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패기 있는 태영이 되자고 연설했다.

박 사장은 이어 새로운 50년을 여는 시점을 맞이하여 태영상선이 21세기 시대 상황에서 보다 크게 도약하고자 하는 '재 창립의 날'을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제 발표, 사원 콘서트, 오찬, 및 체육활동 등 임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행사들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태영상선 관계자는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적극적이고 하나된 마인드를 확인했으며,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하나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진해운

신항 2단계 1차 컨부두 운영계약

한진해운(대표 박정원)은 4월26일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추준석)와 2008년 준공예정인 부산신항 2단계 1차 컨테이너부두 운영계약 조인식을 가졌다.

한진해운 박정원 사장과 부산항만공사 추준석 사장은 이날 관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 계약에 조인했다.

BPA와 운영 계약을 체결한 한진해운은 지난 3월31일 신항 2단계 1차 컨테이너부두의 운영사로 선정됐으며 2008년말 준공 예정인 5만톤급 2선석, 2만톤급 2선석 및 기능시설에 대해 30년간의 임차권을 갖게 된다.

한진해운과 BPA는 이날 조인식에서 원활한 업무협조체계 유지와 효율적인 터미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컨테이너부두개발지원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BPA는 부두시설의 적기 준공과 함께 한진해운이 신항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PA 관계자는 "세계적 해운선사인 한진해운이 신항사업에 본격 참여함에 따라 신항이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으며 향후 신항 물동량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해운은 4월14일부터 싱가포르-방글라데시간 전용 피더 서비스를 시작했다. CSS(Chittagong Singapore Service)로 명명된 이 피더 노선은, 현지 피더선사 '씨 컨소시엄(Sea Consortium)'과 공동운항으로 총 5척의 선박을 투입하여, 매 4일마다 1회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포트켈랑, 방글라데시 치타공, 싱가포르 구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3월 말 시작한 싱가포르-태국간 전용 피더 서비스와 더불어, 서남아 지역의 서비스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 구간의 전용 피더 서비스 개선을 통해 물류 비용 절감과 원활한 환적 물량 수송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전용 피더 서비스망 구축은, 서남아 지역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에서 향후 영업 강화를 위한 사전 포석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한진해운은 지난 2004년과 작년에 아라비아해와 페르시아만 지역에, 올 3월 말에는 싱가포르-태국간 전용 피더 서비스를 개설한 바 있으며, 앞으로 주요 아시아 구간에 전용 피더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상선

부산신항 터미널운영 계약

현대상선(www.hmm21.com, 대표 노정익)은 4월28일 오후 2시 부산 중구 중앙동에 위치한 부산항만공사 27층 대강당에서 노정익 사장, 부산항만공사 추준석 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신항 2단계 2차 컨테이너부두 임대사용 조인식'을 개최했다.

현대상선은 지난 3월31일 부산항만공사가 실시한 부산 신항 신규 터미널 운영사 입찰에서 2단계 2차 터미널의 운영자로 최종 선정되는데 이어 이번 계약 조인식을 시작으로 터미널 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다.

현대상선은 향후 2년 여간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설비 투자를 통해 제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009년 개장해 전용터미널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대상선은 지난 2002년 초 부산과 광양에서 운영하던 3개의 컨테이너 전용터미널을 매각한 바 있어, 2009년 이 터미널을 가동하게 되면 7년 만에 국내에서 전용터미널을 운영하게 된다.

현대상선은 8,600TEU 선박 8척을 포함 향후 3년간 20여척의 컨테이너선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어서, 터미널을 개장하는 2009년에는 부산항에서 단일 해운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연간 약 143만TEU의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상선 노정익 사장은 신항 계약 조인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번 터미널 확보는 현대상선의 새로운 도약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국내 및 해외에서 터미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산항을 가장 경쟁력 있고 모범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상선은 1996년 국내 해운업계 최초로 대만 카오슝 항에 컨테이너 전용터미널을 개장한 이래 미국 롱비치, 타코마 항에서도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앞서 현대상선은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환경 경영 기업으로 공인받았다.

현대상선은 미국 서부의 롱비치 항만청이 제정한 '2005년도 그린 플래그(Green Flag)'상을 수상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롱비치 항은 대기오염의 원인인 항만 내의 선박·열차·트럭·하역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2001년부터 「대기오염 방지 프로그램(Port of Long Beach Air Program)」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에서 배출하는 오염 방지를 위해 항만 내 20 마일 해역에서는 선박의 운항속도를 12노트(Knots)로 감속 운항하도록 제도화하고, 이를 준수하는 선박들의 점수를 산정해 '그린 플래그' 상을 수여하고 있다.

2005년 롱비치 항만에 기항한 해운회사 중 보유선박이 한 척이라도 이 규칙을 지킨 회사가 100여개에 이르는데, 현대상선은 준수율이 우수한 13개 상위 업체들 중에서도 준수율 98%로 1위를 차지한 것이다.

현대상선의 선박 중 5척이 이번에 '그린 플래그' 상을 수상했으며, 이 선박들은 앞으로 롱비치항 기항시 연간 185만 달러에 달하던 부두 사용료(Dockage)를 15%까지 할인받게 되어 현대상선은 환경경영 우수 기업으로 공인받은 것과 함께 약 30만 달러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며 막대한 경제적 이득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홍아해운

미이케항 정기선서비스

금년 1월 일본 후쿠오카현 오무타(OMUTA)시와 미이케(Miike)항 정기항로 개설에 따른 협정서를 체결한 바 있는 홍아해운(회장 이윤재)이 4월19일부로 미이케항에 첫 정기선 서비스를 시작했다. 매주 수요일 홍아해운의 3,700톤급 컨테이너선 M/V 홍아부산호가 기항하게 된 미이케항에서는 4월19일 오전 정기선 서비스가 개시된 것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미이케 항만관계자, 후쿠오카현 관계자, 미이케 이용촉진위원회, 홍아해운 관계자 등 50여명과 오무타시 시민들이 참석한 어제 행사에서 홍아해운(주)의 이윤재 회장은 미이케항과 홍아해운의 지속적인 교류로 양자간의 발전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홍아해운의 이번 미이케항 기항은 원양선사들이 미치지 못하는 틈새시장의 개척과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 및 항로의 개발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미이케항은 1908년 마츠이 광산회사의 건설과 함께 개항한 항구로 내항과 외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긴 방파제와 갑문시설에 의해 간조 때에도 수심 9m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 항구 전체가 부양식 도크가 되는 특징이 있다.

홍아해운은 현재 미이케항을 포함하여 일본 내 약 40여 포트를 기항하고 있으며, 미이케항을 기항하는 항로는 부산-이마리-센다이-미이케-부산-모찌-하카타-부산-이마리-센다이-미이케 순이다.

이에 앞서 홍아해운은 3월25일부터 중국과 인도를 잇는 신규 삼국간 주1항차의 직항서비스를 개시했다. CIX(China India express)로 명명된 이 노선은 홍아해운과 현대상선이 총 4척의 선박을 투입하며 중국 상해를 기점으로 닝보-홍콩-싱가포르를 거쳐 인도의 나바샤바를 기항한 뒤 다시 싱가포르-상해를 운항하는 서비스이다.

2003년 10월 중순부터 인도 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홍아해운(주)는 이번 CIX 노선의 운항으로 인도 직기항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직기항체제는 해당 노선의 짧은 트랜짓 타임(transit time)으로 이어져 어느 선사보다도 신속하고 정확한 인도 서비스의 구축을 가능케 하였다.

이번 서비스는 흔히 친디아(Chindia)로 불려지는 신흥 거대시장인 중국과 인도를 연결하여 최근 두 대륙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화주들의 운송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홍아해운(주)는 향후 인도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최고의 파트너이자 정확한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계획이다.



부산항만공사

중소형 피더선사 지원책 마련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추준석)가 화물 유치를 위해 중소 피더선사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화물 확대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BPA 추준석 사장은 4월27일 부산항에 중소형 피더선을 기항시키고 있는 국적 선사 대표 등 11명을 초청, 피더선사 대표자회의를 갖고 환적화물 확대 유치방안을 논의했다.

추 사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동북아 주요 항만 간 화물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부산항이 동북아 중심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피더선사 대표자들이 특히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사장은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시행중인 현행 인센티브제는 피더선사에는 별다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BPA가 중소형 피더선사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PA는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 △신항-북항 동시기항 선박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피더선박의 부산항 입항 횟수에 대한 감면 또는 접안료 할인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BPA는 피더선사와 화주 등을 상대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피더선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책을 확정, 곧바로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BPA 이형락 북항운영팀장은 "최근 둔화되고 있는 부산항의 물동량을 확대시키기 위해 피더선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화물을 추가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로지텍

대규모 PI 프로젝트 수주

해운물류 IT전문기업 사이버로지텍(대표 김종태)이 세계적 해운선사인 한진해운이 미래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PI(Process Innovation) 프로젝트에 IBM과 함께 참여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한진해운의 PI 프로젝트는 해운물류 환경의 급격한 변화, 날로 치열해 지는 시장경쟁, 그리고 고객 Need의 다양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 무형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계획되었다.

이는 고객 지향적인 관점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혁신적으로 재설계하여 이를 차세대 선사 IT시스템에 접목함으로써 고객과 가장 거래하기 쉬운 회사, 고객을 가장 잘 이해하는 회사로 변모하여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며 조직의 변화를 지향하고자 하는 경영혁신 프로젝트이다.

이번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이버로지텍과 IBM이 맡아서 수행하게 될 업무의 범위는 이미 도출되어 있는 개선 프로세스 별로 최적화된 솔루션을 도입/구축함과 동시에 유관 Legacy System과의 원활한 연계를 보장하는 시스템 구축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시스템으로 구현될 주요 과제를 대별하면 YMS(Yield & Performance Management

Solution), NMS(Network Management Solution),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EM(Strategic Enterprise Management), MDM(Master Data Management), BMS(Bulk Management Solution), EDW(Enterprise Data Warehouse), e-Service Center, 전사 IT Architecture 구현 등 일류 선사로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IT Solution을 총 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사이버로지텍과 IBM은 기본적으로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되 과제별로 명확한 Role & Responsibility 하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이버로지텍은 앞으로 약 1년 6개월에 걸쳐 수행하게 될 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함은 물론 회사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사항임을 인식하고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얻게 되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제반 Knowhow를 적극 활용할 경우 세계 해운/항만 물류 시장에서 가장 뛰어난 IT구현 능력(프로세스 개선 컨설팅, 시스템 구현, 사후 서비스)을 지닌 글로벌 마켓 리더로 자리매김 하고자 하는 회사의 Vision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

하역장비 현대화 지원

인천항만공사(IPA · 사장 서정호)가 인천항 하역 장비 현대화 사업을 적극 지원해 인천항 항만 생산성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4월24일 트랜스퍼크레인 등 하역장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대체하기 원하는 부두 운영사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하역장비 현대화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우선 올해 안으로 하역장비를 신규 도입할 예정인 (주)선광 등 5개 부두운영사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수협중앙회에서 총 87억 원 가량의 대출을 앞선해 주기로 했다. 또 대출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차입되는 하역장비 구입 자금 대출은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인천항만공사는 앞으로 발생하는 대출이자 가운데 일부를 부담해 5년간 총 7억원 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하역장비 현대화 자금 지원 사업을 통해 2006년 중으로 신규 확충되는 하역장비는 모두 68대에 달한다. 도입되는 하역장비를 기종 별로 살펴보면, 트랜스퍼크레인 8대와 하버크레인 3대, 리치스택커 3대, 야드트랙터 5대, 지게차 49대 등이다.

인천항 부두운영사는 항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하역장비의 현대화 및 신규 도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비싼 장비 가격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인천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항만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천항만공사의 이번 지원 사업으로 수월하게 하역장비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강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국해양소년단연맹(총재 이정화)이 한강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을 운영한다.

연맹은 한강에서의 수상활동을 다양화하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한강 시민공원 이촌지구 거북선나루터를 출발하여 반포에 이르는 '한강도하체험' 훈련장을 4월22일부터 10월말까지 1일 3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5월5일에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한강을 찾은 어린이들에게 해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해양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어린이 동반 가족에게 무료 배 태워주기 행사를 실시한다.

한강도하체험은 이촌 거북선나루터 수상 훈련장을 출발하여 반포 호안까지 카누(4인), 고무보트(6-13인), 바이킹보트(16-20인)를 타고 1시간 30분 동안 한강의 험한 물살을 헤쳐 나가는 프로그램이며, 참가자에게는 한강도하 기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어린이날 행사는 SK자원봉사단 후원으로 행사장에는 모터보트, 고무보트, 카누, 페달보트, 바이킹보트 등의 수상활동과 에어바운스,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마술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활동이 마련되어 있다. 또 행사장 주위에는 잔디공원과 어린이놀이터, 자전거대여소 등 다양한 휴식처가 있어 아름다운 한강에서 즐거운 어린이날을 만끽할 수 있다. 한강도하체험 프로그램과 무료배태워주기 행사는 한국해양소년연맹(www.sekh.or.kr)과 한강시민공원사업소(hangang.seoul.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접수를 받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경대학교와 학연협력 조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이정환)은 4월13일

부경대학교(총장 목연수)와 양 기관의 학연협력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양 기관의 '교수 및 연구원의 학술적 교류, 공동 연구 및 조사, 학술 출판물의 교류, 양 기관 보유시설의 상호 이용'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하여 양 기관의 수산, 해양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술연구의 교류 활성화를 추진함으로써 상호 대외 이미지 제고와 공동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양 기관의 대표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수산과학대 강당에서 이정환 해양수산개발원장의 특강이 있었다.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경영혁신 연찬회 개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사장 박재영)은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충남 천안에 위치한 수협중앙회 연수실에서 임직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와 혁신마인드 확산을 위한 2006 경영혁신 연찬회'를 가졌다.

'혁신 실행 및 확산'을 주제로 한 이번 연찬회는 혁신마인드 함양과 임직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인하대학교 최정철 교수의 '경영혁신 및 BSC'와 추계영상문예대학원 신봉승 교수의 '사회지도층의 윤리와 책임의식'을 주제로 특별강의가 있었으며, 안양샘병원 박상은 원장의 '21세기 미래건강학' 및 은평문화예술회관 강선숙 전임강사의 '우리 소리를 통한 세계화'에 대한 건강 및 교양강의도 실시했다.



전라남도 목포시 9일간의 해양문화축제 성료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항구도시 목포에서 4월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해양문화축제가 펼쳐졌다.

서남권 해상영웅들의 나들목으로서 평화로운 바다를 지향했던 목포만의 독특한 해양문화와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축제로서 축제를 통해 해양문화 중심도시 건설의 최적지인 목포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미항목포의 이미지를 브랜드화하기 위해 열린 이번 축제는 지역특성을 살려 시민축제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

문화예술의 본고장이자 풍부한 수산자원과 먹거리,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서남권 중심어항으로 신안군, 해남군 등 다도해를 잇는 연안 항로의 중심지로서 개막행사 '출항!'으로 시작된 행사는 '목포평화바다 선포!'를 끝으로 폐막됐다.

특히, 축제기간 중에는 2006 목포풍어제, 목포평화바다 어선 퍼레이드 '만선의 깃발을 올려라!'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으며, 바다행사의 일환으로 목포항 파시(波市), 목포평화바다 해상불꽃쇼, 미항목포 크루즈, 레이저쇼, 남해안 해양민속 초청공연, 해난구조 및 헬기 레펠구조 시연 등을 가졌다.

이와함께 해양 문화·예술행사로서 목포테마 뮤지컬 '난영', 삼학테마 공연 '학춤', 목포 자매결연도시 중국연운항시 여성악단 초청공연, 희망목포 띠배띄우기, 목포 각설이타령 등공연이 이어졌다.

이밖에도 축제기간 중 특별행사로서 2006 DJ평화 전국마라톤대회, 제6회 전국꽃장식대회, 제1회 이대방 춤 제전, 제1회 목포해양문화축제가념 학술대회, 황포돛배 프로젝트 등을 선보였다.

한편, 77만여명의 관광객이 찾은 이번 축제는 어선퍼레이드를 포함한 개막행사와 평화바다선포식,

해상불꽃쇼, 폐막행사'만선' 등 축제의 컨셉을 전달할 수 있는 주제행사를 선보임으로써 목포해양문화축제의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도된 해상불꽃쇼에는 20여만명의 관광객과 시민이 한데 몰리며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다.

또 109년 역사사진전, 해양유물전시관특별전시, 테마설치미술 '희망의 깃발'등 테마행사를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미래목포의 비전을 제시함은 물론 관광객에게 신해양시대 목포의 이미지를 높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축제를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 축제가 최고의 관광상품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약 250억원 가량의 지역경제 창출효과를 거뒀다.

반면 우천을 대비해 실내 공연장을 마련하지 못한 점, 평화광장 주무대 부근 화장실 부족 등의 미흡한 점도 발생해 이후 보완해야 할 점으로 평가했다.

목포시는 무엇보다도 "평화바다 해상불꽃쇼 등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는 모든 직원들을 행사장에 투입, 적절하게 배치하며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축제기간 내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목포해양문화도시 건설 견인차로서의 목포대표축제로 해양문화가 숨쉬는 미항목포의 이미지업을 통한 지역 브랜드화, 글로벌 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6 목포해양문화축제는 지난 2005년까지 10회째 개최한 유달산꽃축제와 2003년까지 8회째 개

최한 도자기축제가 목포를 대표할 수 없다는 여론에 따라 목포의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축제개발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시민 아이디어 및 중

합기획안 공모, 대표축제 연구모임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목포해양문화축제로 개발한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배는 유조선 '야레 바이킹'

전 세계에서 현존하는 선박 중 가장 큰 배는 1975년 일본 스미토모 중공업에서 건조된 노르웨이 요르겐 야레(Jorgen Jahre) 해운회사 소속 유조선 '야레 바이킹'(Jahre Viking)호이다.

이 배는 길이 458.45미터, 폭 68.86미터, 깊이 29.8미터에 이르고 총톤수 236,710톤으로 화물창의 크기가 658,363㎡로 564,739톤의 원유를 실을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이다.

이 선박의 길이는 우리나라 63빌딩(249미터)보다 209미터가 더 길고, 갑판면적을 보면 축구장 크기의 2.5배를 넘는다. 이 선박은 그 규모가 너무 큰 까닭에 실제적으로 운항되기보다는 유류 저장시설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야레 바이킹호가 유조선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고 보면, 일반화물선 가운데 최대 선박은 '베르게 스탈'(Berge Stahl)호이다

이 선박은 광석운반선으로 1986년 한국의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되었다. 선체 길이는 342미터에 총톤수 17만5,720톤, 화물적재량을 나타내는 재화중량톤수는 36만4,767톤에 달한다. 주기관은 Man B&W 24,858마력 엔진을 탑재하였고 13.5노트 속력을 낼 수 있다.

그러면 부산항 개항 후 현재까지 입항한 선박 가운데 가장 큰 선박은 어느 배일까? 부산에 입항한 최대 선박은 2004년 11월 20일 입항한 8,500TEU 급 컨테이너선 'CSCL Asia'호이다.

이 선박은 길이 334미터, 폭 42.8미터로 전 세계에서 운행되고 있는 컨테이너 선박 중 최대급으로 2004년 7월 우리나라 삼성조선소에서 건조했다.

통상 우리가 가장 큰 선박이라고 생각하는 항공모함 중 최대인 미국 해군 '헨리 트루먼'호는 길이 332.9미터인데, 'CSCL Asia'호는 그보다 1.1미터가 더 긴 점을 생각하며 이 배가 얼마나 큰 선박인지 알 수 있다.

이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화물 8,500TEU는 20피트(약 6미터)길이 컨테이너 8,500개를 실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 컨테이너를 일렬로 세워놓을 경우 8,500개 x 6미터 = 51km미터에 달해 부산에서 마산까지 거리를 넘는 길이가 된다.

이와 같은 선박이 부산항에 한번 입항할 경우, 입항료, 도선료 및 예선사용료 등과 화물 적양하 수입 등 직접 경비와 2차적으로 발생하는 간접 경비를 합하면 부산항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수역원에 달하고 이는 웬만한 중견기업 직원 한 달분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선박이 해당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고용창출 역할은 실로 막대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세계 최대 화물선 '베르게 스탈'과 최대 컨테이너선 'CSCL Asia'를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였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해양조선강국의 자부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출처 : 재미있는 배이야기(부산 지방해양수산청)]



- 한국선주협회, 화물유통촉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해양수산부에 제출
- 해양수산부,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정비 관련 해군본부와 실무협의, 인천남외항 기본설계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ASF), 제9차 선박재활용위원회 중간회의가 개최(3/6-7, 대만)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 Workshop 개최(3/9-10, 해양과학원)

• 해양수산부, 항만민자사업 중장기 종합추진계획 수립 T/F팀 구성운영

• 해양수산부, 투자유치 관계기관 '합동투자유치팀' 운영개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해양수산부, 운임공표제도 개선관련 해운업계, 화주협의회 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위한 대책회의 개최, 부산항 신항·광양항 항만Landmark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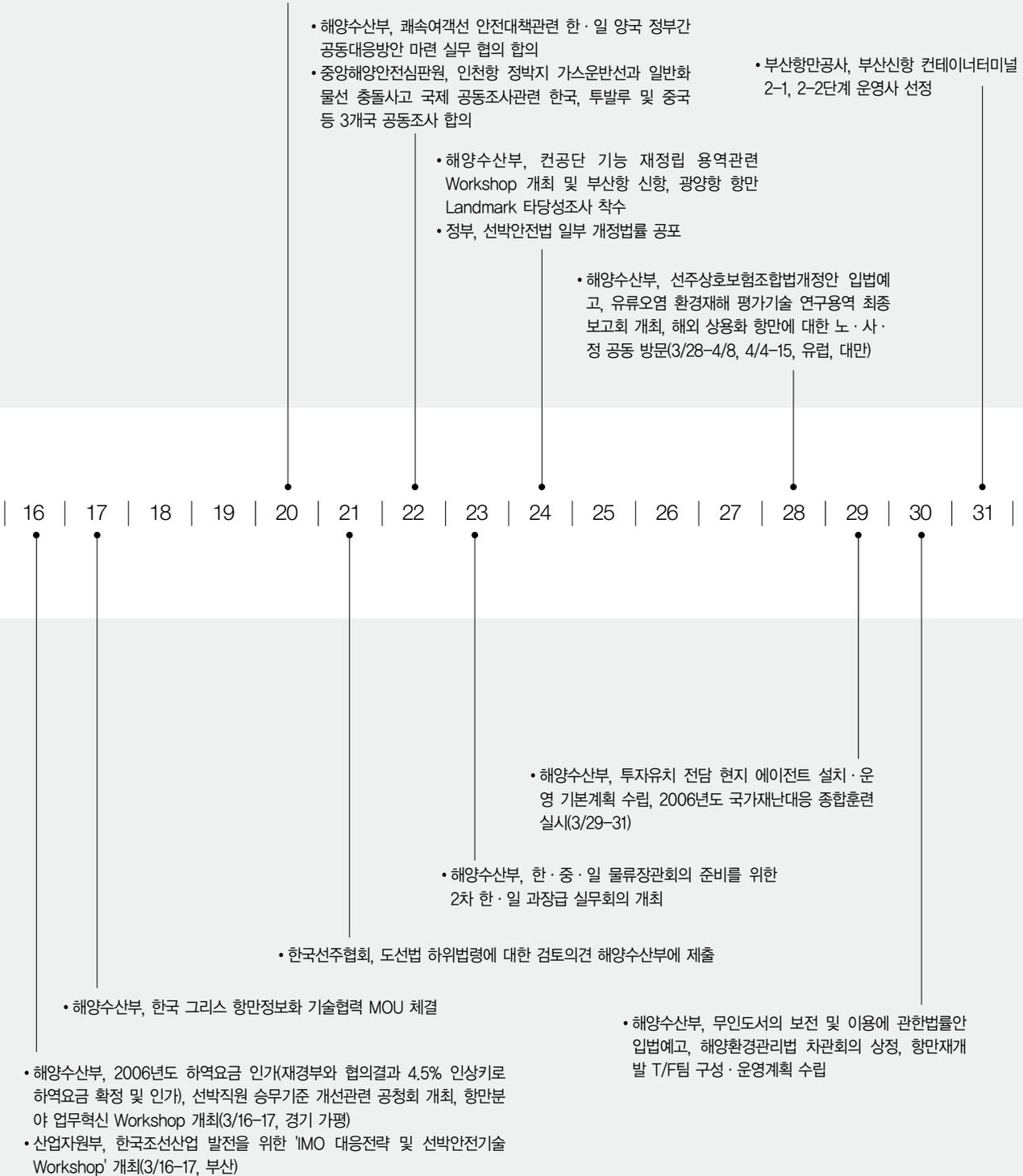
• 정부, 해양수산부 장관에 김성진(金成珍) 중소기업청장 내정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박직원 승무기준 개선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부산항만공사, TOC 2006 ASIA(제10차) 개최 (3/4-16, 부산 벡스코)

• 해양수산부, 2006년 U-Port 구축사업을 위해 정통부 U-IT선도사업 사업과제 작성 및 응모
• 포함지방해양수산청, 신항 호안부두 운영사 선정 설명회 개최

• 한국선주협회,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
• 해양수산부, 한·일 쾌속여객선 안전관련 정부간 협의 제안 및 독도 지반 안전성 조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대한적십자사, 대북지원 비료 해상운송 용역 입찰설명회 개최

• IMO, 제54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개최(3/20-24, 영국 런던)





2006 4

- 한국선주협회, 한·이란 해운협정 가시명본 수정에 대한 의견 해양수산부에 제출, 2006년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조정결과 국적외항선사에 통보
- 해양수산부, 선박투자회사제도 전문가 T/F 회의 개최, 한·러간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 실시(4/3-7/부산)
- IMO, 제10차 산적액체 및 가스전문위원회 개최(4/3-7, 영국 런던)
-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ASF), 제11차 선박보험법제위원회 중간회의 개최
-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요령 개정시행, 한·중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 협약체결, 해적피해 예방 및 대응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대책 논의
- 해양수산부, 외항운송사업자운임공표업무 처리요령 개정시행, 대산항 1-2단계 실시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한국선주협회, 한·터키 해운협정 문안에 대한 의견 해양수산부에 제출
- 해양수산부, 해양안전분야 ISO 도입 대책 반 교육(4/11-12, 경기 양평)
- 한국선주협회, 국적외항선사 기획담당 임원 간담회 개최
- 해양수산부, 물류정책기본법개정안 관련 관계기관 실무 회의 및 2012 여수세계박람회유치 특별위원회 개최
- 외교통상부, 한-멕시코 FTA 협상 대책회의 개최
- 해양수산부,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 한국선주협회, 회장단회의 개최(제15차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 주요의제 등 안건 협의), 부산사무소 항만실무분과위원회 개최
- 해양수산부,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 성과지표개발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고부가가치 물류 Hub화 실천전략 국무회의 보고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안전관계관회의,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BPA)관련 관계자 회의, 글로벌터미널 운영사 육성 용역착수보고회 및 T/F 1차회의 개최

- 한국선주협회, 외국선박의 선박안전법 적용제의 조속시행토록 해양수산부에 건의
- 해양수산부,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구축 착수 보고회 개최
- 해양경찰청, 국제해상교통 안전활동 정책설명회 개최
- 국회, 공유수면매립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 전남도, 컨공단, 여수청, 제4회 광양항 국제포럼 개최(4/19-21)

- 해양수산부, 항만민자사업 평가체계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 공청회 개최

- 한국선주협회, 대량화물 수송방안에 관한 대책회의 개최

- 한국선주협회, 선박 톤세제 제도개선관련 유관단체 회의 개최
- 해양수산부, 민간투자 대상 및 자원 다양화방안연구 워크숍 개최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한국선주협회, 2006년도 제1차 중앙예선운영협의회 실무위원회의 개최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법안 국무회의의 상정, U-Port 구축사업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아·태 해사안전청장회의의 참가(4/18-21, 칠레)

- 해양수산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한국선주협회, 제2회 한국선주협회장배 전국요트경기대회 개최(4/20-25, 부산시 수영만 요트경기장), 해무위원회 및 산학간담회, 톤세제도 시행상 문제점 개선 대책회의 개최
- 해양수산부, 선박직원 승무기준 개선관련 워크숍 개최(4/20-21)

- IMO, 제91차 법률위원회 개최(4/24-28, 영국 런던)

-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정책 세미나 및 회원국감사(MAS) 대책본부 회의 개최

- 해양수산부, 연안오염총량관리 기술 지침 고시